

의복평가기준의 이론적 분류기준

김 미 영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Theoretical Classification of the Clothing Evaluative Criteria

Mi Young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won University

(1995. 2. 16 접수)

Abstract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out the new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clothing evaluative criteria(CEC), and to clear up the relationships of new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s. For this purpose, the existing literatures related with the CEC(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variables)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s were 'the intrinsic. non-intrinsic classification', 'the level classification', 'the purchase process classification'. The new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CEC is based on 'the view-point of subjects'. The system was divided into the point of clothing itself, the wearer, the other, the wearing situation. The wearer's point of view is divided into the point of the value, and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wearer.

2. The image was included as the concept of the CEC, and the image classification could be suggested.

3. The relationships of the classification systems were as follows: ① The intrinsic. non-intrinsic classification system included the level classification, the view-point classification, the image classification, and the buying process classification. ② The level classification, the view-point classification, and the image classification were linked mutually, but the buying process classification is separated from these classifications.

I. 서 론

1990년 이후 의류학에 의류상품학 분야의 연구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¹⁾ 그중 의복평가기준에 관한 연구와, 의복평가기준과 유사한 개념의 의복선택행동, 선택

요인, 구매동기, 의복이미지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2,4,5-24)}. 이런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복평가기준들은 대부분의 경우 의복평가기준에 대한 개념의 분류없이 연구자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되고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차원 또는 개념의 평가기준들이 혼합되어 사용되거나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경

우 다음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첫째, 결과의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둘째, 여러 실험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을 누적시켜 이론을 정립시키고자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먼저 의복평가기준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분류시키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전 연구²⁾에서 의복평가기준의 개념을 분류하였으나 어떤 평가기준들은 이 분류기준에 의해 분류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았었다. 따라서 새로운 분류기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존의 의복평가기준의 분류기준들과 의복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및 의복평가기준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복선택행동, 선택요인, 구매동기, 의복이미지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이런 기존 연구의 고찰을 통해 새로운 분류기준을 제시해 보고, 부가적인 관심으로 여러 분류기준들을 종합하여 분류기준들간의 관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기존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기존의 의복평가기준에 관한 연구들을 다음의 3개 관점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의복평가기준의 개념이 어떤 기준들로 분류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의복평가기준에 관한 연구들과 의복선택행동, 의복선택요인, 의복구매동기, 이미지등 의복평가기준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연구들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의복선택행동, 선택요인, 구매동기, 이미지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하위 변인들을 보면 대부분 의복평가기준들과 동일한 것들이어서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셋째, 기존 연구의 고찰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의복평가기준의 분류기준

의복평가기준의 분류기준을 밝히기 위해서 우선 평가기준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평가기준이란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기준들 또는 특성의 명세들이다³⁾. 즉 평가기준이란 상품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우선 의복의 특성에 따라 의복평가기준의 개념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의복의 특성

에 따른 의복평가기준의 분류기준을 제시하였었다. 이 기준들은 평가기준이 의복의 본질적 특성이나 비본질적 특성이냐에 따른 본질, 비본질별 분류기준과 의복의 특성을 수준(level)에 따라 분류한 수준별 분류기준이다. 이외에도 구매과정에 따른 분류기준을 들 수 있다⁷⁾. 이상의 분류기준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본질·비본질별 분류기준

의복평가기준의 정의는 소비자들이 의복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의복의 주관적 혹은 객관적 특성이다⁴⁾. 객관적 특성은 의복의 색채, 스타일, 섬유, 재단과 재봉등이며 주관적 특성은 편리성, 안락감, 안정성등이다. 이런 특성들은 상품의 본질적 특성들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구매시 사용하는 기준에는 의복의 이런 본질적 특성 외에도 상표명이나 가격, 포장, 에프터서비스, 판매상점 유형등이 있다. 이런 특성들은 제조업자나 유통업자에 의해 상품에 부착되거나 따라 다니는 것으로 상품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이 아닌 비본질적 특성이다. 이 특성은 상품의 본질적 특성이 아닐지라도 평가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본질적 특성의 대리지표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본질·비본질별 분류기준을 사용한 연구는 김미영²⁾ Eckman⁵⁾ 고애란⁶⁾ 등의 연구가 있다. 김미영²⁾은 의복평가기준의 이론적 틀을 만드는데 본질·비본질별 분류기준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복평가기준을 먼저 본질적 평가기준과 비본질적 평가기준으로 나누고 다시 수준별(level) 평가기준으로 분류하여 의복평가기준의 틀을 만들었다.

Eckman M., Damhorst M.L., Kadolph S.J.⁵⁾의 연구를 살펴 보면, Eckman은 기존의 21개의 의복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결과를 요약했으며 각 연구들에서 사용된 평가기준들을 본질·비본질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가격, 상표명, 제조국, 점포, 소유의복과의 조화, 판매원의 평가, 매장내의 소속부서, 타인의 인정, 품질보증등의 평가기준은 비본질적 기준으로, 상품구성, 스타일, 색채, 디자인, 직물, 섬유조성, 손질, 치수의 맞춤새, 내구성, 안락감, 안전, 염색견뢰도, 품질, 구성, 물리적 품질, 직물의 품질, 성에 대한 적합성등은 본질적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고애란⁶⁾은 청바지의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에서 14개의 평가기준을 내재적 기준과 외재적 기준으로 분류한 후 사용하였다. 색상, 직물, 어울림, 바느질, 부속품, 편안함, 견고함,

디자인, 날씬해 보이는것, 몸에 꼭 맞는 것, 내 몸에 잘 맞는 것은 내재적준으로 가격, 상표명, 이미지는 외재적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 내재·외재적기준은 본질적·비본질적 기준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준중 이미지물 외재적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의복의 이미지는 의복의 본질적, 비본질적 특성들이 합하여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외재적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를 이루는 기본 특성이 무엇이냐에 따라 본질적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비본질적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격이 나 상표에 의한 이미지면 비본질적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스타일이나 색채등 디자인에 의한 이미지면 본질적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2) 수준별 분류기준

연구자는 이전 연구에서 의복평가기준을 상품특성의 수준(level)에 따라 3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수준별 기준들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3가지 수준에 대해 예를 들어 살펴보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지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요소수준의 기준으로 이기준은 상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으로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들이다. 의복의 스타일, 색채, 섬유, 조직, 재단과 재봉, 무늬, 부착품, 치수 등이다.

둘째, 추구잇점수준의 기준으로 이기준은 소비자들이 상품에서 얻고자 하는 잇점(benefit)들, 혹은 유용성(utility)으로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기준들도 포함된다. 의복의 신분상징성, 실용성, 경제성 등이다.

셋째, 중간적 연결수준의 기준으로 이 기준에 따라 추구잇점의 특성이 결정되며 이 특성들 자체는 구성요소수준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즉 구성요소수준과 추구잇점수준의 중간에 위치하여 상호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특성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도 있고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의복의 실용성은 추구잇점수준의 특성이 되고, 섬유의 종류와 직물의 조직, 직물의 가공법이 어떠한가에 따라 직물의 인장강도와 내세탁성, 내필링성 등이 결정될 것이며, 이런 강도와 내성에 따라 의복의 실용성이 결정될 것이다. 이때 인장강도, 내세탁성, 내필링성 등은 중간적 연결수준의 특성이 되는 것이다. 이 예를 보기쉽게 그림으로 구성해 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구성요소수준의 특성	섬유의 종류 직물의 조직 직물의 가공법
중간적 연결수준의 특성	인장강도 내세탁성 내필링성
추구잇점수준의 특성	의복의 실용성

[그림 1] 수준별 분류기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예

3) 구매과정별 분류기준

구매과정별 평가기준은 소비자의 구매행동과정중 어떤 과정에서 작용한 평가기준인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EKB의 소비자행동모델중 의사결정변수에서 보면 문화적 규범과 가치관, 준거집단, 가족의 영향에 의해서 라이프스타일이 형성되며 라이프스타일은 평가기준에 영향을 준다(규범 → 라이프스타일 → 평가기준 → 동기). 따라서 이때의 평가기준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속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치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소비자의 심층에 뿌리를 내린 내재적 평가기준이다. 즉 내재적 평가기준은 평소에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기준이라고 하겠다. 반면 실제 구매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문제인식 → 탐색 → 대안평가 → 선택 → 결과)의 대안평가단계에서 사용하는 평가기준은 구매결정 순간에 작용하는 평가기준으로 구매평가기준이라고 한다. Eckman등¹⁰⁾도 점포내의 구매의사결정모형을 위한 연구에서 특정 의복의 구매와 비구매를 결정해 주는평가기준들을 연구했는데 이것도 마지막 구매결정 단계에서 구매를 결정해 주는 구매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구매평가기준들은 내재적 평가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재적 평가기준을 선택이 가능한 범위의 상품들이 모두 만족시켜 주고 있다면 구매를 결정하는 순간에 사용되는 평가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연구자는 이전 연구⁷⁾에서 이 두 평가기준의 개념을 정의하고 차이를 실제로 검증하였다. 내의와 잠옷의 경우, 섬유의 종류와 편안함이 소비자들이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재적 평가기준들이었으나 실제 구매를 결정해 주는

주1) 구매과정별 분류기준에서 본 내재적 평가기준은 고애란의 연구에서 분류한 내재적 평가기준과는 다른 개념이다.

구매평가기준은 색채, 값에 비해 좋은 옷을 사는가로 나타났다.

2. 의복평가기준, 의복선택행동, 의복선택요인, 구매동기, 의복이미지에 관한 연구

의복평가기준에 관한 연구와 의복평가기준과 관련된 의복선택행동, 의복선택요인, 의복구매동기의 연구에 사용된 평가기준들을 살펴보면 이 기준들이 어떤 분류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런 고찰 과정을 통해 새로운 분류기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²⁾는 1961년~1989년 사이에 의복평가기준연구들에서 사용된 평가기준들을 수준별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이론적 틀을 구성하였다. 이 이론적 틀에는 타인의 승인, 부모나 친구의 권유등과 같이 다른 사람의 평가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준과 착용자에게 적합한가, 어울림과 같이 착용자의 외모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수준별 분류기준으로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런 평가기준들도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평가기준들로서 이런 평가기준이 타인의 평가기준에 의한 것인가, 착용자의 평가기준에 의한 것인가, 또 의복이 착용자와 상호작용할 때의 평가기준인가에 따른 기준들이다. 따라서 평가의 주체가 타인이나 착용자냐에 따른 주체관점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고애란⁶⁾의 청바지 연구에 사용된 평가기준들을 보면 평가기준이 평가되는 관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어울림의 경우 의복이 무엇과 어울리는 것인지 명확히 해 주고 있지 않았다. 어울림의 경우는 착용자의 체형, 얼굴, 성에 어울리는 것인지, 착용상황에 어울리는 것인지 2가지 관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ckman⁵⁾의 연구에 사용된 적합성의 경우도 착용상황에 적합한지 착용자의 성, 나이, 체형, 얼굴등에 적합한지 정의되지 않은 채로 사용되고 있어 적합성도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은 착용자가 착용해 볼 때 작용하는 착용자의 관점과 착용상황에 따라 작용하는 착용상황의 관점에 따라서도 분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복선택행동, 선택요인, 구매동기, 이미지의 연구에 사용된 하위변인들을 보면 의복평가기준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의복선택행동, 선택요인, 구매동기의 연

구에서 사용된 하위변인들을 보면 유행성, 개성, 동조성, 신분상징성(브랜드인지 및 신분상징성), 자기과시성, 타인지향성, 실용성, 경제성, 정숙성, 심미성등이다⁸⁻¹⁴⁾. 이 변인들은 대부분 수준별 평가기준으로 분류해 볼 때 추구잇점수준의 평가기준에 속하는 개념들이다. 또한 이 기준들은 대부분 착용자의 가치관에 따른 것으로 착용자의 관점, 특히 착용자의 가치관의 관점에서 본 평가기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평가기준들도 평가기준의 주체관점이 누구냐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의복이미지, 상표이미지, 점포이미지, 혹은 특정 의복아이템인 청바지의 이미지, 자아이미지등이 있다^{6,14-23)}.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기성복업체에서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이미지들이 있다. 이상의 이미지 연구는 이미지 자체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의복평가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의복을 선택할 때 의복이미지나 상표이미지, 점포이미지등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인희¹⁵⁾와 박소향¹⁶⁾의 여성복 이미지, 고애란⁶⁾의 청바지의 추구이미지, 장은영¹⁹⁾의 의류상품이미지에 관한 군집과 평가용어<표 1>를 보면 품위있다, 편해보인다, 활동적이다, 몸에 잘 맞는다, 패서너블하다, 정숙하다, 값비싼 등 평가기준의 연구에 사용된 것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직선적이다, 곡선적이다, 강렬하다, 어둡다, 밝다, 장식적이다, 심플하다, 꾸민 등의 의복평가기준인 디자인(선, 색채, 재질)의 특성을 표현해 주는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복평가기준에 이미지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미지에 따른 분류기준도 의복평가기준의 분류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미지 평가기준도 수준별 평가기준의 분류와 같이 몇 단계의 하위수준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품위있다, 고급스럽다등은 추구잇점수준으로, 곡선적 직선적, 꾸민등은 구성요소수준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이미지의 하위개념을 명확히 하여 이미지별 분류기준을 체계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기존연구들의 고찰결과

의복평가기준의 분류기준과, 의복평가기준, 의복선

< 표 1 > 의부의 이미지 평가용어들

연구자	대상의부 (대상자)	군집	품위	현대성	촌스러움	활동성	드레시함	젊음						
정인희	여성부 (여성)	평가 용어	정숙하다	대담하다	촌스럽다	편해보인다	드레시하다	귀엽다						
			지적이다	패셔너블하다	답답하다	활동적이다	낭만적이다	밝다						
박소향 김인숙	여성부 (남성)	평가 용어	얌전해보인다	독특하다	부자연스럽다	스포티하다	무선적이다	발랄하다						
			품위있다	강렬하다	조잡스럽다	수수하다	동양적이다	화사하다						
			단정하다	화려하다	유행에 뒤떨어졌다	캐주얼하다	전원적이다	젊어보인다						
			깔끔하다	섹시하다	싸구려같다	간편하다		참신하다						
			고상하다	장식적이다	복잡하다	평범하다		청순하다						
			클래식하다	이국적이다	불편해보인다	직선적이다								
			고급스럽다	현대적이다	나이들어보인다	자연스럽다								
			우아하다	서양적이다		남성적이다								
			예쁘다	도회적이다		단순하다								
			고전적이다	매력적이다										
			성숙해보인다	세련되었다										
			날씬해보인다	멋있다										
			여성적이다	맵시있다										
			현대적이다	고상하다	밝다	독특하다	직선적이다							
			패셔너블하다	품위있다	편해보인다	복잡하다	남성적이다							
			세련되었다	정숙하다	활동적이다	전위적이다	딱딱하다							
			매력있다	얌전해보인다	간편하다	재미있다	어둡다							
			멋있다	지적이다	발랄하다	풍성하다								
맵시있다	클래식하다	캐주얼하다												
서양적이다	분위기있다	심플하다												
젊어보인다	우아하다	귀엽다												
섹시하다	고전적이다	스포티하다												
날씬하다	여성적이다	자연스럽다												
아름답다	단정하다	청순하다												
화려하다	성숙하다													
고급스럽다	포근하다													
잘 어울린다	동양적이다													
강렬하다	낭만적이다													
도회적이다	무선적이다													
예쁘다														
산뜻하다														
상큼하다														
몸에 잘맞는다														
이국적이다														
참신하다														
깔끔하다														
드레시하다														
대담하다														
깨끗하다														
장식적이다														
고애란	청바지 (남녀 대학생)	평가 용어	성적 매력있는	성적매력과 무관한	꾸미지 않는	꾸민	전통의	현대적인						
			유행을 따르는	기본적인	화려한	소박한	거칠은	세련된						
장은영 이선재	의류상품 (여성)	평가 용어	개성적인	남들과 비슷한	캐주얼한	포멀한	격식차린							
			값이싼	값이 적당한	젊은	나이든	딱딱한	부드러운						
		군집	혁신/보수	신체매력성	캐주얼/포멀	남성/여성								
		평가 용어	혁신적인	보수적인	키가 큰	키가 작은	날씬한	풍만한	젊은	나이든	딱딱한	부드러운	남성적인	여성적인
			화려한	수수한	유행하는	유행하지 않는								

택행동, 선택요인, 구매동기, 이미지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첫째, 기존의 분류기준외에 새로운 분류기준이 가능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새로운 분류기준은 평가기준의 주제 관점에 따른 것으로 의복이라는 상품특성 자체가 가진 평가기준외에, 착용자, 타인, 착용상황의 관점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것은 평가기준이 타인의 평가기준에 의한 것인가, 착용자의 평가기준에 의한 것인가, 착용상황과 상호작용할 때의 평가기준들인가에 의한 분류이다. 다음은 의복의 이미지를 의복평가기준의 개념에 포함시켜 의복의 이미지를 새로운 평가기준의 분류기준으로 포함시키는 문제이다. 소비자들은 의복 평가기준으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표 1>의 의복이미지 평가용어들을 살펴보면 의복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의복평가기준의 여러 분류기준들은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이들간의 상호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복평가기준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통일된 용어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적합성이나 어울림등의 평가기준이 어느 관점에서의 평가인지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경우는 평가기준의 주제 관점에 따라 분류해서 사용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외에도 연구자와 Eckman의 연구에서 사용된 본질·비본질적 평가기준, 내재적·구매평가기준의 용어와 고애란의 연구에서 사용된 내재적·외재적 평가기준의 용어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다.

Ⅲ. 의복평가기준의 주제관점별 분류기준의 제시

앞의 연구에 사용된 평가기준들과 분류기준들을 살펴 본 결과, 이미지에 따른 분류와 평가의 주제 관점에 따른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선 우선 새로운 분류기준으로 주제관점별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부가적인 관심으로 이 분류기준과 기존의 분류기준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미지에 따른 분류의 경우는 아직 이미지의 하위개념이 체계화된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복평가기준의 분류기준으로 포함시킬 것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분류내용은 후속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1. 주제관점별 분류기준의 제시

의복평가기준들은 의복자체가 가지고 있는 평가기준의 관점과 이기준들이 평가되는 관점 또는 상호작용하는 관점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그 관점은 크게 의복, 착용자, 타인, 착용상황으로 세분될 수 있다. 각 관점의 평가기준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예를 들면 의복의 관점에서 본 사이즈 평가기준은 착용자의 관점에서 본 맞음새(날씬해 보이는가, 내 몸에 잘 맞는가)와 상호작용한다. 즉 의복자체가 가지고 있는 평가기준은 항상 일정한 상태로 있으나 그것이 착용자나 착용상황, 타인의 평가와 관계될 때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각 관점의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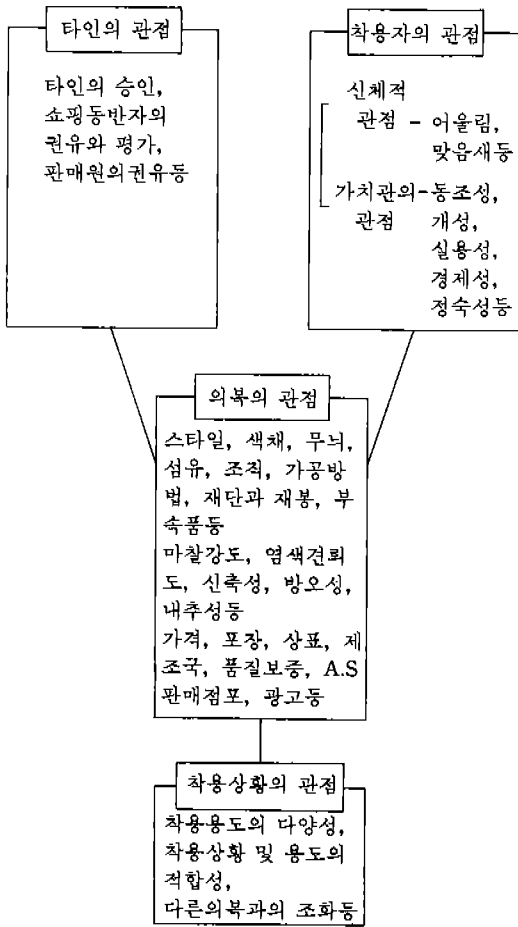
의복의 관점에서 본 평가기준들은 의복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비본질적 특성들이다. 이것들은 소비자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의복의 스타일, 색채, 무늬, 섬유, 조직, 가공방법, 재단과 재봉, 부착품, 마찰강도, 염색 견뢰도, 가격, 포장, 상표, 품질보증, 광고등은 의복의 관점에서 본 평가기준들이다.

착용자의 관점에서 본 평가기준은 착용자에 따라 의복의 관점에서 본 평가기준들이 재구성되어 평가되는 것이다. 이 관점은 다시 가치관의 관점과 신체적 관점으로 세분될 수 있다. 가치관의 관점에서 본 평가기준들은 주로 소비자가 상품에서 얻고자 하는 추구이점(benefit)으로 수준별 평가기준의 분류에서 보면 추구이점수준의 기준들이다. 예를 들면 동조성, 개성, 정숙성, 신분상징성, 실용성, 경제성등이 착용자의 가치관의 관점에서 본 평가기준들이다. 신체적 관점에서 본 평가기준들은 의복자체가 착용자의 신체적 특성과 상호작용할 때 평가되는 기준들이다. 예를 들면 어울림, 맞음새(신체나 체형에 어울림, 맞음새)등이다.

타인의 관점에서 본 평가기준은 착용자가 아닌 타인의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승인, 쇼핑동반자의 권유와 평가, 판매원의 권유등이 여기에 속하는 평가기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착용상황의 관점에서 본 평가기준은 의복자체의 특성들이 착용상황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른 평가기준으로 착용용도의 다양성, 착용상황 및 용도의 적합성 등이 그 예이다.

이상의 평가기준의 주제관점별 분류기준과 각 관점에



[그림 2] 의복평가기준의 주체관점별 분류기준과 평가기준의 예

속하는 평가기준의 예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를 보면 앞의 설명과 같이 의복의 관점에서 본 평가기준은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이 관점의 평가기준은 착용자와 타인, 착용상황의 관점의 평가기준과 관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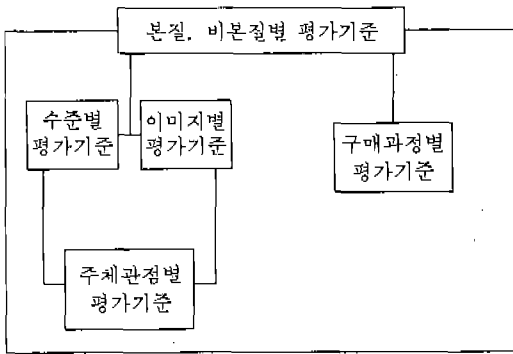
이상의 주체 관점에 따른 분류기준은 제시의 단계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앞으로 검증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분류기준은 연구결과들을 누적시켜 이론화 시킬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평가기준들 각각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보다 각 평가기준들이 속해 있는 평가의 관점으로 제시함으로써 중간범위이론으로 체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Eckman

등⁵⁾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점포내에서 마지막 구매결정 단계에서 특정의복의 구매와 비구매를 결정해 주는 구매평가기준들은 맞음새, 외관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주체관점별 분류기준에 의해 분석해 보면 소비자들이 구매결정단계에서 중요시 하는 구매평가기준은 착용자의 신체적 관점에서 본 평가기준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복평가기준 분류기준들간의 관계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밝혀진 평가기준의 분류기준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분류기준은 본질·비본질별 분류기준, 수준별 분류기준, 구매과정별 분류기준, 평가주체관점별 평가기준, 이미지별 평가기준들로서 이들 분류기준들간의 관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모든 분류기준에 속한 평가기준들은 본질적 평가기준들과 비본질적 평가기준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체관점별 분류기준을 보면 의복의 스타일, 색채, 무늬, 조직등의 본질적인 평가기준과 가격, 포장, 상표, 타인의 승인등의 비본질적인 평가기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수준별 분류기준에서도 본질적 평가기준은 물론이고 비본질적 평가기준으로서 가격과 상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미지의 경우에도 이미지가 의복의 본질적 특성과 비본질적 특성이 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미지별 분류기준도 본질적, 비본질적 평가기준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의 평가용어에서도 의복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직선적이다, 곡선적이다, 강령하다, 어둡다, 밝다, 장식적이다(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용어들)등과 비본질적 특성에 속하는 값비싼, 값이 적당한 등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구매과정별 분류기준도 소비자가 사용하는 평가기준은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본질적, 비본질적 평가기준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질·비본질별 평가기준 안에서 수준별 평가기준, 주체관점별 평가기준, 이미지별 평가기준, 구매과정별 평가기준들이 분류된다고 하겠다. 이때 구매과정별 평가기준은 구매과정에 따라 횡적으로 본 평가기준들로서 주체관점별 평가기준, 수준별 평가기준, 이미지별 평가기준과는 다른 차원으로 분리된다. 그러나 수준별 평가기준, 이미지별 평가기준, 주체관점별 평가기준들 모두는 구매과정별 평가기준으로 사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앞의 이론적 연구중에서도 보았듯이 수준별 평가기준, 주체관점별 평가기준, 이미



[그림 3] 의복평가기준의 분류기준들간의 관계

지별 평가기준들간에도 상호관계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별 평가기준들도 그하위 개념들이 수준에 따라 세분될 것으로 보이며, 주체관점별 평가기준의 경우도 관점에 따라 수준별 평가기준이 다르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지의 하위개념의 수준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연구가 없고, 이 세 분류기준들간의 관계도 세심히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 본 연구에서는 규명하지 못하고 후속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단지 분류기준들간의 관계를 크게 3부분으로 엮어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IV.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의복평가기준의 분류기준과 의복평가기준, 의복선택행동, 의복선택요인, 구매동기, 이미지등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면서 의복평가기준의 새로운 분류기준으로 이미지의 개념을 포함시킬 것과 주체관점별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주체관점별 평가기준은 평가기준의 관점을 의복, 착용자, 타인, 착용상황으로 분류하였다. 의복의 관점은 의복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평가기준들이다. 착용자의 관점은 착용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한 평가기준들과 의복이 착용자에게 입혀졌을 때 착용자의 신체적 특성과 상호작용하는 평가기준들로 세분된다. 전자는 착용자의 가치관의 관점, 후자는 착용자의 신체적 관점이다. 타인의 관점은 착용자외의 사람들의 평가들이고, 착용상황의 관점은 의복이 착용상황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른 평가기준들이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밝혀진

평가기준의 분류기준들간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다음의 의의를 갖을 것이다. 첫째, 새로운 분류기준은 기존의 분류기준으로 분류하기 어려웠던 평가기준의 분류를 가능하게 해 주고, 의복 평가기준의 선택시 연구자의 임의적 기준에 의한 선택보다는 연구에 적합한 개념 선택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둘째, 연구결과와 분석과 활용시 체계적 해석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며 체계적인 해석의 누적은 이론의 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의복평가기준연구에 사용되었던 분류기준들을 종합 정리해 봄으로써 의복평가기준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의의를 갖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주체관점의 분류기준이 아직 제시의 단계이며, 평가기준의 분류기준들간의 관계 설명이 부족하였다. 둘째, 이미지별 평가기준의 경우 구성 수준별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연구가 없어 체계적으로 분류시키지 못하고 단지 평가기준의 개념에만 포함시켰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이미지 평가기준의 하위구성개념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주체관점의 분류기준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평가기준의 각 분류기준들을 완성시키는 연구들이 선행되면 분류기준들간의 관계도 더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성화경, 이옥희, 유혜경, 한국의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인용된 참고문헌분석, 한국의류학회지, 18(5), 695, 1994.
- 2) 김미영, 이은영, 의복평가기준의 이론적 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3), 321-334, 1991.
- 3) Howard, J.A., Consumer behavior application of theory, New York : Mc Graw-Hill Book Co., 28, 1977; 김미영, 이은영, 의복평가기준의 이론적 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3), 326, 1991.
- 4) 박은주, 이은영, 의복선택기준에 대한 요인구조분석, 한국의류학회지, 6(2), 41-48, 1982.
- 5) Eckman, M., Damhorst, M.L., Kadolph, S.J., Toward a model of the in-store purchase decision process: Consumer use of criteria for evaluating women's apparel,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8(2), 13-22, 1990.
- 6) 고애란, 국내 및 외국 상표 청바지의 구매의도에 따른 평가기준에 대한 신념과 추후이미지 및 의복태도의 차이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2), 263-272, 1994.

- 7) 김미영, 이은영, 의류상품 유형별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Ⅰ), 한국의류학회지, 12(2), 249-257, 1989.
- 8) 정하신, 이인자, 의복선택요인과 욕구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7(1), 27-35, 1983.
- 9) 김소연, 조필교, 성인여성의 의복선택행동과 관련변인 연구/자아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2(2), 159-268, 1988.
- 10) 정찬진, 김옥진, 의복의 유행스타일 수용과 선택기준 및 유행정보원 활용과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12(3), 351-361, 1988.
- 11) 원선, 강혜원, 의복변인에 의한 시장세분화와 라이프스타일과의 관계/20~30대 여성의 의복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2(3), 309-366, 1988.
- 12) 강경자, 성인여성의 자아실현도가 의복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7(3), 1-11, 1989.
- 13) 정명선, 패션정보원 활용에 따른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3), 257-269, 1992.
- 14) 임숙자, 이주은, 의복구매동기에 따른 점포이미지 선호도에 관한 연구(2)/이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7(1), 3-10, 1993.
- 15) 김영인, 패션이미지에 의한 남자대학생 의류시장 세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3), 299-314, 1992.
- 16) 정인희, 의복이미지의 구성요인, 제충구조 및 평가차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2.
- 17) 박소향, 김인숙, 남자대학생의 여성복 이미지 평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2), 10-19, 170-179, 1994.
- 18) 이경희, 의복형태와 디테일에 의한 표면이미지의 시각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8(5), 54-68, 646-660, 1994.
- 19) 장은영, 이선재, 의류상품이미지에 의한 의복구매과정 모형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5), 749-764, 1994.
- 20) 김문숙, 임숙자, 상표이미지 선호도와 패션광고 전략에 관한 연구/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3(3), 197-206, 1989.
- 21) 김혜정, 임숙자, 여성기성복 상표이미지의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2), 262-275, 1992.
- 22) 오현주,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한 여성기성복 상표포지셔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0.
- 23) 김현숙, 패션점포의 이미지에 따른 유형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0.
- 24) 박은주, 의복구매상황과 의복평가기준과의 관계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2), 161-171, 1991.